

백색숨결 展

이동엽 회화와 이수종 달항아리의 조우



백색숨결 전시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색으로서의 흰색'이 꾸밈 없으면서도 확고한 존재감으로 현존하는 '이동엽의 회화'와 '이수종의 달항아리'가 한 공간 안에서 조우하여 내는 공명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흰 공간에 붓질을 한다.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흰 공간에 하나의 획을 긋는다. 나와 세계를 일체화하고 공명의 공간을 형성, 하나의 생명(공간적 신체)을 부여한다. 사라지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순환의 고리, 존재의 무상성을 드러내는 붓질로 자연계의 공명적 구조를 열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¹ _이동엽



Song Art Gallery Installation view 이동엽 사이(間) 200호

이동엽에게 백색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존재의 태(胎)이며, 끝과 시작이 회귀하는 사이의 공간이며, 의식의 여백이며, 사유를 담는 그릇이며 터전이였다. ² 백색의 공간에 그려진 수평과 수직의 중심긋기, 그 생명선은 세계의 중심에 닿고자 하는 작가의 관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무의 지대에서 그려진 무수한 그의 붓질은 존재의 심연에 닿을 내리기 위한 생의 호흡이며, 그의 치열한 의식이기도 하다. 1946년생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쟁과 폐허, 정치와 사회가 내는 혼란, 생의 불안과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서의 백색은 그에게 아름다움의 메타포이다.

백색으로 시작되어 백색으로 회귀하는 이동엽의 회화는 백색 안에서 내면적 여백이 생성되고 그것이 공간으로 파동하는 여운을 형성해 나간다. 그의 백색은 물성을 걸러서 정신화시킨 백색이다.



Song Art Gallery Installation view 이수종의 달항아리

그것은 또한 조선백자의 백색과 맥을 같이 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평면에서 우리는 부정형의 백자를 만나게 된다.³ 백자의 색은 단순한 흰색이 아니다. 백자의 색은 조선의 시대정신을 담은 색이다. 장식을 제거하고 형태를 단순화시킨 검약이라는 시대정신의 색은 한국의 폭넓은 흰색의 세계를 보여준다. 흰색은 어렵다. 그러나 흰색은 본질적이다. 흰색의 뉘앙스로 구축된 부정형의 형태, 백자 달항아리는 그래서 기교가 없지만 세련되고, 무심한 듯 하지만 시대가 만들 수 있는 절정의 도자기술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미적 성취였다. 시선에 따라 다르게 와닿는 형태의 풍부한 양감을 지닌 달항아리는 포착이 불가능한 부정형이다. 그 부정형 안에서 백자 달항아리는 인간의 내면을 직시하게 하는 내면적인 백색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폭넓은 흰빛의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의 원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는 한국미의 본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 시대 백자 항아리들에 표현된 원의 어진 맛은 그 흰바탕색과 아울러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⁴ _최순우

그 조선 백자 달항아리를 빚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태어난 달항아리가 이수종의 달항아리이다. 그의 달항아리는 조선백자를 더 질박하게 풀어내었다. 은은한 백색의 몸체에 부정형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담담한 지경을 보이고 있다. 순백의 달항아리가 지닌 부정형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응축된 힘이 형태로 배어나오는 것이기에⁵ 달항아리의 부정형은 재현되는 것이 아니다. 빚어내는 자와 흙과 바람, 물과 불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이수종은 [달항아리의 거친 잇잡이 지닌 질박함]과 [부정형이 지닌 형태의 무심한 기교]를 이어가면서 조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백자 달항아리만이 은유할 수 있는 깊이이기 때문이다.

달항아리의 부정형 몸체를 이루는 백색과 심미안을 요구하는 미묘한 백색 뉘앙스가 스며든 회화의 백색은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으나, **내면의 세계로 이끄는 분명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백색은 무한의 공간을 은유하며, 백색은 존재를 암시하며, 백색은 다른 색으로 변할 수 있는 모태의 색이며, 생을 내포하는 색이다. 이 백색이 움직이지 않는 회화와 도자에서부터 스며나와 우리의 내면의 색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백색숨결과 백색공명에서 백색평온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영혼을 흔드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의 내부에 침잠하고 있는 정신성에 있다. **답답하고도 의연한 정신 그것이 백색숨결의 심연**이다.

'형태라든가 색채는 그 「白色」 속에서 태어나고 다시 그 「白色」 속으로 사라진다.' ⁶

글 이지연

백색숨결 展

이동엽 회화와 이수종 달항아리의 조우

전시 일정 2014. 8.21 - 9.19

전시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4동1685-3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 B133 송아트갤러리

전시 문의 SONG ART GALLERY T. 02 3482 7096 Email. haksoosong@naver.com

<http://blog.naver.com/haksoosong>

각주1. 이동엽, 존재적 명상과 순환

(참조) 2008년 1월 31일 - 3월 23일, 그림의 대면(Inter-viewing Paintings) 전, 소마 미술관

각주2. 이동엽, 존재적 명상과 순환

모든 존재 현상은 빛과 어둠, 혼돈과 질서, 충만과 공허, 음과 양의 양면성을 지니며 이것은 우주의 순환과 균형, 생명의 본질이다. '밝음이요 빛'인 흰 공간, 그곳은 존재의 대지 또는 존재의 출처로서 생명의 바다이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세계의 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형태의 구조에 접근하는 것이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순환의 고리, 자연의 숨결과 진동을, 그 생명적 공간과 시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존재의 태(胎), 그것은 무상(無常)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우주 속에 육화하는 물질과 행위의 일체화 즉 합일의 세계를 이루고자 함이며 그것은 자연의 의지로서 그 순환의 원리에 밀착하는 인간정신, 의지이다.

각주3.

1972년 제1회 『양데팡당』전에 출품한 이동엽의 〈상황〉을 본, 당시 파리비엔날레 출품작가 선정 심사위원인 야마모토 다카시 동경화랑 사장은 “조선의 백자를 연상시킨다.”라고 격찬하였다. (1972년 제1회 양데팡당전 「평면 일석」, 한국미술협회)

각주4.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2008, p 484-487

각주5.

순백의 달항아리가 지닌 부정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응축된 힘이 형태로 배어나오는 것이다. _이수종

각주6.

나카하라 유스케, '한국 5인의 작가 다섯가지 흰색 전'(1975. 5. 6 - 5. 24 東京畫廊, 나카하라 유스케의 서문), 1975년 5월 15일 弘大學報에 게재된 번역글, 안원찬 譯,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 III-Vol. 1(ICAS, 2003)에서 발췌